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지난3月31日 代議員1백8名 참가리에 제20次定期總會 開催 ※이날 施賞한 표창패 수여자 명단 △제주도지부장=김동균△충앙이사=김용한 △여주군소장=이옥황 △인제군소장=이종렬△논산군소장=이수산 △제천시소장=이광우△구례군소장=정일영 △남원시소장=안성홍 △합천군소장=백문기 △안동군소장=권응화 △부산금정구소장=최병호 △본부총무부장=전근택 〈이상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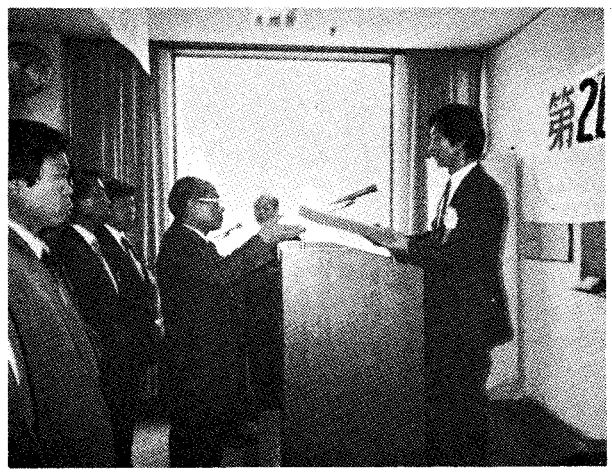
○人事發令

①大田직할시 支部長에 徐丙文氏 任命 : 協會는 大田직할시 승격이후 마땅한 支部長후보를 물색하던중 평소 理事로 추천으로 現在 동춘당건재약업사를 自營하고 있는 徐병문씨를 市支部長으로 4월17일부로 發令하였다.

〈徐지부장 약력〉

- 1946년6월3일生
- 忠南大德 出身
- 大田상업고등학교 卒
- 忠南大學校 경영大學院 수료
- 大田지방 국세청근무 (1971~1981)
- 동춘당건재약업사 경영中

②오래동안 本會산하 경기도 支部長職에 있던 吳寬秀氏를 協會事情에 의하여 지난 89년3월21일付로 해직 發令하였음으로 산하 업부여란등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수여식(89. 3. 31)

◇서병문지부장

中央共販場의 岐路

最近 터무니 없는 賃貸保證金 대폭引上으로 (現2천5백5십만원인데 4백%인상인 1억2천만원) 開店休業상태를 면치 못하고있는 庫品去來를 始作하였고, 系統出荷되는 物品에 對하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오니 各級分所長께서는 培前의 協助와 聲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회비 조속완납當付

今般 20次 總會에서 決算報告한 바와 같이 약 9백여만원의 회비가 체납되어 협회기본운영상태가 원활치 못하는 形便임으로 4월20일 기통보한 회비납부촉구 지시文을 받은 各級所長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지체없이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 2月末을 기점으로 하여 3月10日頃 인수인계 절차가 끝났는데 不拘하고 건물主의 어려운 事情에 의한 一方的 대폭인상 要求로 예정된 開場을 못하고 있음으로 會員들의 期待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성을 듣고있는 形便으로 안타까운 마음 禁할길이 없다.

本來 共販場은 위탁去來가 主기능임으로 手數料(서비스업)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임대보증금을 追加로 내고는 收支타산이 맞지않는다.

會長個人的으로 부담하기는 事理가 맞지않고 株式형태로 구성하여 出資하자면 상당한 期間이 所要되므로, 目標한 開業은 매우 어려운 處地에 놓여있다. 따라서 先開店 後처리라는 方針下에 우선 部分的 수리와 運營을 하기 爲하여 지난18일부터 문을 열고在庫品을 始作하였고, 系統出荷되는 物品에 對하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오니 各級分所長께서는 培前의 協助와 聲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회비 조속완납當付

今般 20次 總會에서 決算報告한 바와 같이 약 9백여만원의 회비가 체납되어 협회기본운영상태가 원활치 못하는 形便임으로 4월20일 기통보한 회비납부촉구 지시文을 받은 各級所長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지체없이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納付하시지 않을 경우는 不得已 方針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 事前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 1〉

基本食事와 건강

안양시 사무소장 이 봉 선

빵이다, 떡이다, 실컷먹고도 때가되면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게 우리 한국사람이다. 잔치집에서도 마시고 먹고 포식을 하고난 후에도 반드시 밥을 꼭찾아드는 사람이 적지않다. 그저 한국사람은 짭짤한김치에 밥을 먹어야 「먹은것 같다」고들 한다. 밥이외의 어떤걸 먹어도 그건 간식이지 식사를 한게 아니라는 묘한 관념을 갖고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세끼밥」은 빼놓지 않고 먹어야만 강할수 있다는 관념이다. 이런 현상은 관념이라기보다 아예 의무감으로 하고있다. 술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외국과는달리 우리처럼 술상에 푸짐한 안주를 먹고도 집에와 선 또 밥이다. 술로 다친 몸을 밥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먹는다.

이건 먹는게 아니라 퍼넣는다는 표현이 나을것 같다. 억지로라도 밥은 먹어야 한다. 오직 건강을 위해…. 이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과을은 밉지만 그래도 꼭 밥을 찾아 먹으니 그나마 몸을 다치지않을것으로 생각, 아주고맙게 여긴다. 혹은 안먹겠다는 남편에게 억지로 몇숟갈을 강요하는 아내도있다. 그래야 몸이 축이 안난다는 이론이다. 이도다어리석은 짓도 없을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이것저것 카로리 있는 음식이 입맛대로 된 삼태에서 위장운동에지장이 있는것 같은데도 거기다 또 무얼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인가… 세끼밥을 먹어야 한다는건 우리의 습관이지 딴걸로 배를 채운후에도 그래야 하는건 아니다. 술배 밥배가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의 미련한 생각에서 연유된 소리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뭐든 먹었으면 그것으로 말끔해야 한다. 꼭 밥이라야 한다는 오랜 인습 때문에 우리의 위장은 녹초가 되어가고 있다. 즉 만복이 되어 축 늘어진 위장에 또 밥이 들어가니 보통 설상가상이다.

自然生 採取 (연재)

지=芷

○과명:산형과

○속명:구리때

○약용부:뿌리

1. 기본:국내 전역 산야에서 자생하는 생장력이 강한 다년생 식물이다. 현재는 많이 재배되고 있다.

2. 생장적지:흙이 부드럽고 비옥한 양토로 배수가 잘되는 서북향 경사가 가장 적지이다.

3. 특징:줄기는 자색으로서 90cm정도 성장하고 잎은 3출 복엽으로 둘레가 톱니같고 꽃은파종후 2~3년이 지나꽃대가 생겨서 여름(8월경)에 흰빛의 작은꽃이 줄기끝에 우산을 펴놓은 모양으로 모여서 피고열매는 가늘고 긴 타원형으로 극히 적다.

4. 채종:발육이 우수한 3년생이상의 포기를 선택하여 9월하순경에 채집한다.

5. 파종:채취한 씨앗은 즉시 파종한다.

6. 채취:가을 11월경 지상에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할무렵에 줄기를 땅에서 약 5cm 남기고낫으로 베어 버리고 뿌리를 상하지않게 캐낸다.

7. 조제:뿌리를 물에 깨끗이 씻고 햇볕에 들시들할 정도로 말려멍석을 펴놓고 두세 뿌리씩 쥐고 부빈다음 손질을 하여 뿌리를 가지런히 하고 두손으로 줄정도의 크기로 묶음을 만들어서 다시 잘 말려제품으로 한다.

8. 이용:감기 두통, 치통, 지혈, 하혈, 지질, 월경과소 부력증 홍분제로 쓰인다.

백=白

○과명:산형과

○속명:구리때

○약용부:뿌리

1. 기본:국내 전역 산야에서 자생하는 생장력이 강한 다년생 식물이다. 현재는 많이 재배되고 있다.

2. 생장적지:흙이 부드럽고 비옥한 양토로 배수가 잘되는 서북향 경사가 가장 적지이다.

3. 특징:줄기는 자색으로서 90cm정도 성장하고 잎은 3출 복엽으로 둘레가 톱니같고 꽃은파종후 2~3년이 지나꽃대가 생겨서 여름(8월경)에 흰빛의 작은꽃이 줄기끝에 우산을 펴놓은 모양으로 모여서 피고열매는 가늘고 긴 타원형으로 극히 적다.

4. 채종:발육이 우수한 3년생이상의 포기를 선택하여 9월하순경에 채집한다.

5. 파종:채취한 씨앗은 즉시 파종한다.

6. 채취:가을 11월경 지상에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할무렵에 줄기를 땅에서 약 5cm 남기고낫으로 베어 버리고 뿌리를 상하지않게 캐낸다.

7. 조제:뿌리를 물에 깨끗이 씻고 햇볕에 들시들할 정도로 말려멍석을 펴놓고 두세 뿌리씩 쥐고 부빈다음 손질을 하여 뿌리를 가지런히 하고 두손으로 줄정도의 크기로 묶음을 만들어서 다시 잘 말려제품으로 한다.

8. 이용:감기 두통, 치통, 지혈, 하혈, 지질, 홍분제로 쓰인다.

부품難 농기계 生産차질

분규영향 영농非常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등 주요농기계 생산업체들이 누적된 적자와 노사분규 등으로 부품조달이 어려워 각종농기계생산에 차질을 빚고있다고 한다.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충청남도 지부

지부장	서산군	문대영
사무소장	당진군	이동규
〃	예산군	최영춘
〃	공주군	이성래
〃	청양군	조덕섭
〃	보령군	박철범
〃	부여군	심년덕
〃	연기군	박복진
〃	논산군	이찬래
〃	아산군	김원규
〃	온양시	윤산철
〃	금산군	윤일호
〃	공주시	이영복
〃	서천군	박식호
〃	대천시	심완영
〃	태안군	박섭춘
〃	대덕군	이범래
〃	공판장장	조덕섭

⊙대전직할시 지부

지부장	중구	이종철
사무소장	동구	장준년
〃	서구	김복찬
〃	〃	한원산
〃	〃	이일식
〃	〃	서완섭
〃	〃	김범덕
〃	〃	한진래
〃	〃	이규철
〃	〃	김호영
〃	〃	한춘래
〃	〃	이섭철
〃	〃	서년복
〃	〃	김찬원
〃	〃	한산일
〃	〃	이식완
〃	〃	서섭범
〃	〃	김덕진
〃	〃	한래규
〃	〃	이신규
〃	〃	김국문

1989년 4월 20일

中央共販場 電話番號 變更案內

舊 : ☎ 962-5895

新 : ☎ 967-4984

※ 위와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生藥材 生産管理向上을 爲한 肥料活用에 對하여…

生藥會員 여러분의 권투와 生藥材 栽培에 보다 더한 發展이 있기를 祝願합니다. 약용작물의 成敗는 기술이 지배적이고, 土壤 조건에서부터 품종선택, 품종개량 施肥요령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인삼을 제외하고는 규범적이고, 體系가 갖추어진 약용작물시험장이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웃나라 日本의 경우는 보사부 산하 국립시험장이 지역별로 무려 5개소나 있어 영농에 어려움없이 發展을 거듭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읍니다.

⊙차제에 폐사는 약용작물의 비료에 착안하여 각 분야로 재료수집에 박차를 가한 끝에 시비의 문헌 또는 실지 재배 경험자의 비방을 얻어 지난 88년도에 실험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당국으로부터 부산물(副産物) 비료허가를 얻어 생산하고 있읍니다. 生藥회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식물이 비료의 영양분을 요구함에 있어 한가지 비료로서는 식물이 요구하는 영양이 부족하므로 여러가지 비료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시비함은 물론이고 식물에 따라 금비나 알카리성을 싫어하는 식물도 있읍니다. 영농에는 비료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지혜를 모아 영농에 임해야 하겠읍니다.

⊙시대흐름에 따른 좋은 정보를 서로 보급하여 영농의 발전을 기약하고 더 나아가 인류보건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生藥材의 훌륭한 商品補給에 이바지할 것을 希求합니다.

⊙폐사제품은 항상 저렴가로 20kg(1포)에 2천3백원(공장도가격)으로 보급하오니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에 따라 施肥방법이 조금씩 差異가있음으로 하시라도 電話 또는 書面으로 下問하여 주신다면 最善을 다해 봉사하여 드리겠읍니다.

연락 또는 문의하실곳

(株)元進産業 (비료제조 허가업체)

本社 : 인천시남구주안동1513—26번지

☎(032) 422+0408

425—1110

工場 : 경기 안산시 목내동 402—2

☎(0345) 491—2231

※協會本部에 연락을 하셔도 연결하여 드립니다.